2004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칼빈의 기독교강요 안에 나타난 신구약의 구원의 방식의 통일성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정 선 혜

칼빈의 기독교강요 안에 나타난 신구약의 구원의 방식의 통일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은 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정 선 혜

이 논문을 정선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12월 9일

주심 이 은 재 Eun Jae Lee

부심 김 영 일

위원 장 화 선 W. S. Chang

위원 이 은 섭 Sem

위원

목 차

Ⅰ. 서론 ····· 2
A. 문제제기 및 목적 ····· 2
B. 연구방법 ····· 3

Ⅱ. 본론 ····· 5
A. 신, 구약의 통일성 측면에서 본 카톨릭의 구원론 ····· 5
1. 계시의 통일성 ····· 5
2. 카톨릭의 칭의론 ····· 9
3. 성례로 인한 구원 ····· 10

B. 신, 구약의 통일성 측면에서 본 루터의 구원론 ····· 11
1. 율법과 복음 ····· 11
2.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 ····· 14

C.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 구약의 통일성 ····· 16
1. 은혜언약의 내용의 통일성 ····· 17
(1) 은혜언약의 내용 ····· 17
(2) 은혜언약의 성격 ····· 21
2. 은혜언약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 22
3. 은혜언약의 성취방식의 통일성 ····· 25
4. 구원의 서정의 통일성 ····· 28
(1) 기독교 강요 3권의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서정 ····· 29
(2) 구원의 서정의 신구약 통일성의 예 ····· 32

Ⅲ. 결론 ····· 36
참고문헌 ····· 38

Ⅰ. 서론

A. 문제제기 및 목적

개혁주의는 신론적 사고의 원리를 갖는다. 구원에 대해 다룰 때에도 구원이란 영원 전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계획이므로 그 예정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나타난다. 영원 전 하나님은 삼위 간의 의논을 통해 작정과 예정을 이루셨기에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구원에 대한 예정에는 구원 받을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서정이 포함되어 있다.(엡1:4, 롬8:30, 딤후1:9)

이러한 영원 전 예정에 의한 구원의 은총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창세 이래로 동일하게 맺어주신 은혜언약 가운데서 살필 수 있다. 구원의 서정은 은혜언약을 이해하는 언약의 통일성에서도 다루어지는데, 언약의 통일성이란 신구약의 통일성을 뜻하는 것으로 언약의 내용의 통일성 뿐 아니라 구원의 방식과 그 서정의 통일성까지도 의미하며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에 의한 구원사역의 통일성을 담고 있다.

칼빈의 개혁신학의 독특성이 그 이후 개혁신학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신론적 사고에 근거한 구원의 신학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개혁주의 신조들[1] 가운데 잘 고백되어 있다.

---

1) 장로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개혁주의의 표준문서로 인정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의 통일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제7장6항에 나타난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고 불린다.(7장3항)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아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무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야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 데 ... 그 메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7장5항)복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여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고자 하는 마르시온을 비롯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 있어왔고 이 시대에도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저자이신 성경의 무오성을 깨면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칼빈의 신학이 잘 드러나 있는 『기독교강요』(이하 강요로 표기)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의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이 갖는 독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B. 연구방법

먼저 역사적으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부패한 카톨릭에서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되는 계시 가운데 인위적인 성례들을 더함으로 인해 신구약의 통일성을 깰 뿐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방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살필 것이고 부패한 카톨릭에 반대한 루터의 경우 구원의 이신칭의를 강조함에 있어 율법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의 제1기능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고 있는 점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카톨릭과 루터와 달리 역사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성정에까지 꿰뚫고 올라가는 신론에 기초[2]한 칼빈의 구원

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7장6항)
또한 돌트 신조, 제2스위스 신앙고백 등 그 이외의 개혁주의 고백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 역(서울:크리스챤다이제슨트.1998). p. 208.

에 대한 이해가 그의 강요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강요 최종판의 구조 안에서 살피면서 개혁신학에서 풍성하게 펼쳐진 은혜언약에 대한 신구약의 통일성이 강요에는 어떻게 담겨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1536년판 강요 초판에서의 그의 신학 사상은 1559년 최종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6년 초판에서는 중세 말기의 문답식 문헌의 관례에 따라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십계명(1장), 사도신경(2장), 주기도문(3장), 성례(4장)의 순서로 구성하여 설명했고 여기에 4장 끝부분에 카톨릭의 미사에 대한 논박을 추가하고 5장에서 "거짓 성례"를 부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정치적 권력에 관한 논문들을 실었다.

한편 그는 강요 최종판의 독자에게 알리는 글에서 "...내가 이 일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나오게 된 이 순서대로 배열되기까지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개요를 개진하였고 또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어떤 목표에 귀착시켜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함으로써 강요 최종판이 가장 만족스러운 순서로 작성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강요 초판의 신학 사상이 반영됨에 있어서 가장 자신의 의도를 잘 드러낸 강요 최종판인 1559년판의 구조를 통해, 그가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반 사항과 경건의 개요을 거의 망라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강요 초판의 부제처럼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강요 최종판을 살피는 데 있어 각 권의 제목에서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각 권은 구원에 대한 신학이 1권, 2권, 3권, 4권의 관계성 안에서 제대로 파악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하여 각 권의 제목과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의 관계성을 살필 것이고 이 논문의 제목인 "...신구약의 통일성에서의 구원의 서정"과 관련하여 특히 1, 2권과 구원의 서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3권까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권에 대한 이해와 그 관계성을 살피고 거기에 담긴 신구약의 통일성을 찾으면서 3권 구원의 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 정리를 통해 신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구원론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드러낼 것이다.

Ⅱ. 본론

A. 신, 구약의 통일성 측면에서 본 카톨릭의 구원론

1. 계시의 통일성

카톨릭은 하나님 계획의 단일성에 근거하여 구약과 신약이 단일하다고 말한다. 또한 신, 구약의 단일성은 예형론에 근거한다. 예형론이란 때가 찼을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예형(豫形)을 구약의 하나님의 업적에서 식별해 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람, 사건, 일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획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형 또는 예표라고 한다. 구약의 예표들은 신약에서 분명해지며,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지닌 역동적인 단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3]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비추어 구약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카톨릭 역시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4]. 신, 구약 성서의 일관성에 대해서 카톨릭은 제2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구약 성서에 영감을 주신 분이시고 그 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지만, 구약성서는 복음 선포에 온전히 수용되고 신약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얻고 드러내며, 다른 한편으로 신약을 밝히고 설명해 준다."[5]

이렇게 카톨릭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근거하여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카톨릭은 계시진리로서 성서 외에 성전[6](전승)을 덧붙이고 있는 점과 성전과 성서를 오류 없이 보전하고 해석할 교회의 권위와 직무를 교도권이라 하여 그 해석자로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교들과 교황을 세우고 그들의 결정에 무류성을 부여[7]하여 유일한 계시인 성경에 반하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까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함으로서 신, 구약 성서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카톨릭 문답에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8]

---

3) 주교회의 교리 교육위원회, 『간추린 카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3). p. 355.

4) Ibid, p. 28.

5)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2). p. 192.

6)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전(聖傳: 전승)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톨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제1세대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성서가 없었으며 신약성서 자체가 살아 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다."

7) Ibid. p. 29.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 모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웠으며 또 나중에 그들이 죽으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그 직무를 받아들이도록 법규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말하는 점이다.[9] 영감 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전되어야 하기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그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사도들에게서 전해진 것 안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고, 신앙을 키우는 데 기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과 생활과 예배를 통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성전(전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발전한다고 한다. "전해진 것들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로써,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으로써, 그리고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로써 증진된다. 곧 교회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세기에 걸쳐 하나님 진리의 충만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간다."[10] 여기서 문제는 카톨릭은 성전과 성서가 둘 다 같은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온

8)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op. cit., p. 22.

9) Ibid, p. 106.

10) Ibid. p. 186.

다고 함으로 성전과 성서의 권위와 목적을 동일시하였다. 오로지 성서만으로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서와 성전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이다.[11] 성전과 성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카톨릭에 의하면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전승)을 통하여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한다. 그리고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해설한다는 것이다. 그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신앙과 도덕의 사안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며 주교들의 단장인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그것은 무류성을 지니며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카톨릭은 성경에다 그들의 전승을 덧붙이고 그들이 말하는 성전과 성서의 구원 진리가 글자나 제도 안에 화석처럼 죽은 채로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살아있는 거룩한 전통 안에 보존되어 내려오면서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며[12] 그 올바른 해석자로서 사도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과 주교들에 의한 결정의 무류성을 주장[13]하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이라는 것이 의심스럽게 한다. 사실상 성경에서

---

11) Ibid. p. 28.

12) Ibid. p. 26.

13) Ibid. p. 115-116.

계시의 종결이 이루어진 가운데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유일한 계시인 성경과 반(反)하는 결정들이 카톨릭 역사 속에서 이어지면서 무오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가운데 구원과 관련해 일곱 성례를 주장하고 성례의 의미를 왜곡시킴으로서 신, 구약의 통일성을 깨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성경 자체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2. 카톨릭의 칭의론

카톨릭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한다. 즉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의지가 전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단지 약화되거나 쇠약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톨릭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일어나는 사람의 의지가 풀 수도 있고 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그 사람은 파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4] 따라서 카톨릭은 칭의가 중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칭의는 은혜의 주입, 즉 새로운 피조물의 출생 혹은 중생과 죄의 용서와 이와 관련된 죄책의 제거와 성화를 포함한다[15]. 트렌트 공의회는 전가의 문제로서만 칭의를 받을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면서, "칭의는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뿐이고 오직 의롭다는 평판만으로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칭의론은 최초의 세례[16]에서 전달되는 최초의 칭의와 성

14) Norman L. Geisler & Ralph E. Mackenzie,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p. 327.

15) Louis Berkhof, 『조직신학 下』,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0), p. 715.

16) 로마 카톨릭의 세례는 세례적 중생을 낳기 위한 신비적 방법이며, 과거의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해주는 보증이다.

찬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점진적 칭의로 구분한다. 점진적인 칭의에 대해서 트렌트 공의회는 행함이 점진적이고 결과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로적 칭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로적 칭의는 선행에 대한 교리로 이어진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끝날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은혜로서 그리고 선행과 공로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답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카톨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의 고난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3. 성례로 인한 구원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성례는 은혜의 원인으로서 성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카톨릭의 교의에 의하면 성례는 신적제도에 근거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이와 같은 성례는 로마 카톨릭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카톨릭은 7단계의 7성례를 통해서 수령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7성례는 구원에 필수적 조건이 된다. "초자연적 삶은 세례로 인해 일어나고, 견진성사로 인해 성장하며, 성체로 인해 조장되고, 참회와 종부성사로 인해 죄의 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연약한데서 치유된다. 그리고 성직수임과 혼인성사와 같은 사교적 성례

로 인해 교회의 회중은 지시를 받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존되고 성장한다."[17] 즉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기관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가지 성례에 다섯 가지 성례, 즉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결혼, 성직 수임식을 덧붙인다. 이 더해진 다섯 가지 성례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로마교회의 전통만이 이 5가지 성례를 보증할 뿐이다[18]. 즉 사실상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5가지 성례의 전통을 덧붙임으로써 신, 구약의 통일성을 깨뜨리며, 성례[19]의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여서 구원의 서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B. 신, 구약의 통일성 측면에서 본 루터의 구원론

1. 율법과 복음

루터는 구약성서를 율법책으로 신약성서를 복음의 책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구약성서는 율법책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친다. 또한 구약성서는 순수한 율법 이외에 그 율법이 지켜지고 깨어진 사례와 이야기들을 추가하여 보여준다. 반면에 신약성서는 복음 곧 은혜의 책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친다."[20] 물론 루터는 신약성서에

---

17) Norman L. Geisler & Ralph E. Mackenzie, op. cit., p. 366.

18) 로레인 뵈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이송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265.

1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성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써 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 복음과 더불어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며, 구약성경도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다.[21] 그러나 루터는 구약성서의 주된 가르침은 계명을 가지고 죄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선한 생활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 신약성서의 주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한 은혜와 평화의 선언이라고 하였다.

루터는 구약성서가 율법이라고 본 것은 주로 모세의 직분 때문이다. 신약을 복음이라고 본 것은 자비의 직분 때문이다[22].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다. 그리고 규례와 율법을 맡은 제사장을 임명한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비는 일이 직책을 맡았다 또한 장막과 예배형태가 정비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구비조건들이 갖추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도가 제도로 움직이는지를 보시기 위해 백성들을 시험하시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는다.[23] 역사서와 예언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모셔오는 모세의 직무의 관리인이며 증거자일 뿐이다. 단지 역사서와 예언서는 모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 종류를 첨가시켜서 그에 따라는 상과 벌을 첨가시킬 뿐이다[24]. 이와 같이 루터는 전 구약성경이 즉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역사서들은 모세의 직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단지 예언서와 역사서들은 모세

20) 루터, 『루터선집』 민영진, 이군호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p, 28.

21) Ibid, p. 28.

22) Ibid, p. 36.

23) Ibid, pp. 29~30.

24) Ibid, p. 38.

가 지녔던 직분을 계속 확대할 뿐이다. 즉 선지서들과 역사서들은 모세 오경에서처럼 백성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입법자이다. 그가 맡은 직무의 성격은 법이 시키는 일은 강제로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25].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혐오감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자비까지 보여주어야 했다. 모세는 율법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모세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능력과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빠지고 그에 대한 처벌로서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 모세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 속에 집어넣고 죄를 북돋아 놓았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의 직분은 선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은 눈이 멀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었다. 모세가 율법을 내어놓은 목적은 양심에 멍에를 씌워서 굳어 버린 무지가 선을 행하는데 쓸모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율법은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능력을 넘어서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서 해서 죄가 아닌 사물들의 죄를 규정한 레위시대의 율법은 소멸된다. 십계명 또한 소멸된다. 그것이 지켜질 수 없거나 완성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모세의 직무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으로써 더 이상 죄를 증강시키지 못하며, 죄는 더 이상 죽음의 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은 화해하셨고, 사람의 마음은 율법

25) Ibid, p. 39.

에 대한 친밀함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즉 모세의 직분은 우리로 죄인되게 하고,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을 알게 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비의 직분이다[26].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의로움과 생명을 안다. 따라서 모세의 직분과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다가 사라진다. 모세의 율법은 언약이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구약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양과 염소를 죽인 피로서 확증되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낡은 것으로 변해 사라졌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렸다. 즉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낡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도 의지하지 않는, 다른 언약이 맺어져야 한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만 의존하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27]. 이와 같이 루터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로 신, 구약의 통일성을 이해했다. 즉 성경은 구약의 율법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고, 신약의 복음만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

루터가 성경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한 이 점은 루터의 구원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도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 의해 사람은 정죄를 받고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루터

26) Ibid, p. 35.

27) Ibid. p. 38.

에 의하면 이 죄는 "너무나 깊은 본성의 타락으로서 이 죄의 열매로 십계명에서 금지된 모든 결과적 악행들로서의 불신, 거짓된 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냄, 뻔뻔스러움, 절망"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8] 이와 같이 죄는 사람의 본성을 부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완전히 발겨 벗겨져서 영혼의 궁극적인 본질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적인 능력을 빼앗겨 의지할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는 것에 있다. 루터에 의하면 율법의 주된 기능은 원죄를 분명케 하고 인간 본성의 깊은 타락과 인간 본성의 부패의 심각성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율법의 기능에 의하여 인간은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29]. 루터에 의하면 율법의 이와 같은 기능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의롭다고 허락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더하여 복음의 기능을 더한다. "율법의 이 직능에다 신약은 즉시 복음 안에서의 은총에 대한 위로의 약속을 더한다. 복음이 부가됨이 없는 채 율법만이 직능을 행사하는 곳에서는 죽음과 지옥만이 있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 율법은 죄를 통해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나 복음은 한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위로와 용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끔직한 상태로부터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30]" 이와 같이 루터에 의하면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율법과 복음은 구원에 본

---

28) 루터, 『루터선집』,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85), 411~412.

29) 티모디 조지, op. cit., p. 74.

30) Ibid., pp. 414~415.

질적이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 율법과 복음이라는 용어를 분리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 받고 복음을 신뢰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은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밝히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율법이 없었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체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도식화시켰다.

C.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 구약의 통일성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산다고 하였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행17:28)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31]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서 사람과 관계를 가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자기비하의 행위였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신, 구약의 통일성은 바로 언약의 통일성을 가르친다. 이 언약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칼빈에게 있어서도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

31) 토마스 빈센트, 『소요리문답』, 홍병창 역, (서울: 여수룬, 1999), p. 25

1. 은혜언약의 내용의 통일성

(1) 은혜언약의 내용

칼빈의 언약에 대한 이해에서 언약의 경륜에 따른 구분과 언약의 내용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칼빈은 이해한 언약의 경륜에 따른 구분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이었다[32].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언약을 구분하였으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구분하였음을 볼 수 있다[33]. 물론 칼빈은 오늘날과 같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이 행위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행위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첫 사람 아담 사이에 조건을 전제로 약속[34]을 주셨음을 말한다. 만약 아담이 그 약속을 실행하였다면 첫 사람 아담은 자신과 그에게서 나오는 자신의 모든 후손들은 영생을 누리고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아담은 그 언약의 내용의 따라 죽음이 닥쳐오게 되었다[35]. 이와 같이 분명히 아담

---

32)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1장에서 신, 구약의 차이점을 논할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표시한다. 즉 구약은 옛 언약이며, 신약은 새 언약이다.

33) 그러나 현대의 성경신학자들은 언약의 중심내용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Elmer A. Martens는 언약의 내용을 '땅, 공동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원'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순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면서 오히려 언약의 중심내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있다. Willam A. Van Gemeren은 언약의 내용을 '백성, 땅, 축복과 보호에 내포된 여호와의 임재,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의 도구가 됨이다.

34) 이 단어는 promissio이다. 이것은 조건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한 아담은 계속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죽음이 온다는 무서운 파멸의 경고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35) Inst. Ⅱ. 1. 4.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였더라면 아담은 영화의 단계에 올라갔을 것이다. "아담이 끝까지 근직했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36]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에게 다른 언약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언약은 은혜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은혜언약은 동일하게 아벨,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그 동일한 언약은 모든 택자, 즉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개념은 은혜언약의 개념이다[37]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가입시킨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모두 동일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 이 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성도들에게도 새 언약의 성도들과 똑 같은 동일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다. "족장들은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에 참여하며 같은 구원을 바라보았다."[38]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다. 그러면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은 차이점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칼빈은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라고 하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지 처리방법이 다를 뿐

---

36) Inst. Ⅱ. 12. 7.

37) 이 은혜언약의 개념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38) Inst, Ⅱ. 10. 1.

이다.[39] 처리방법이 다른 이유는 단지 시대에 변화에 따른 인간의 능력에 맞도록 형식을 조절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신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경배는 처음에 명령하신 것과 똑 같은 것을 계속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빛나는 것이다.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의 능력에 알맞도록 행동하신다."[40] 이와 같은 칼빈의 언급은 신, 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잘 나타내는 것과 함께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은 시대에 따른 차이이지, 언약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함[41]을 가르친다. 이와 같은 언약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걸쳐서 동일하신 자로서, 동일한 교리를 바탕으로 동일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경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주제였던 신, 구약 성경의 통일성은 언약의 통일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언약의 통일성을 논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내용의 동일성이다[42]. 이와 같이 언약의 중심으로 삼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것이 언약의 총체이며, 내용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내용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즉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

---

39) Inst, Ⅱ. 10. 2.

40) Inst. Ⅱ. 10. 13.

41) 곧 언약의 통일성이다.

42) 은혜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이다.

엇인가?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땅에 붙어있는 혜택의 모양으로 제시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내세의 은총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직접 내세를 명상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상적 혜택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서 천상적인 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셨다."[43] 구약은 실재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고, 신약에서는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언약의 실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실현에 의해서 언약은 최종적으로 확인되며 인준된다.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의식들을 제정하셨다. 그런데 이 의식들은 언약의 일시적인 속성, 장식품, 첨가물에 불가하였지만, 언약을 실시하는 수단이었기에 언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즉 옛 언약은 언약을 확인하는 엄숙한 방법을 의미한다[44]. 세 번째는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즉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새겼다. 전자는 죽음을 전파하고 후자는 생명을 전파한다[45]. 넷째 차이는 옛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종종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주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른다[46]. 마지막으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 민

43) Inst. Ⅱ. 11. 1.

44) Inst. Ⅱ. 11. 4.

45) Inst. Ⅱ. 10. 7.

46) Inst. Ⅱ. 11. 9.

족만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한 백성에게만 국한시켰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셨다.

(2). 은혜언약의 성격

이와 같은 은혜언약의 성격은 영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격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옛 언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복과 소망이 주어졌고, 그것이 다만 육적인 복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 이미 옛 조상들에게도 영적인 복이 제시되었고, 옛 조상들 역시 영적인 소망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47]. 즉 족장들에게도 모두 영적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족장들은 언약의 내용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즉 족장들에게도 그들의 신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48]. 따라서 칼빈은 고대인들의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생활양식은 일종의 계속적인 훈련이었다. 그들이 현세 생활만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가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 잃어버린 행복을 회상하기만 해도 지극히 슬펐던 아담은 고된 노동으로 겨우 살아갔다...두 아들가운데서도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47)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도리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영생의 희망을 주셨고, 신탁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하셨다. 둘째로, 그들을 주에게 묶어 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유지되었다. 셋째,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Inst. Ⅱ. 10. 2)

48) Inst. Ⅱ. 10. 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은 족장들도 극도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 이들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한히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악전고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49] 그러나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생활을 받으려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을 지상의 것으로 보지 않고 지상 이외의 것으로 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다른 것이다. 족장들은 가난안 땅에서는 무덤 이외에 "발 붙일만큼도" 얻지 못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족장들은 사후가 되어서야 약속의 결과를 받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50] 즉 족장들은 내세의 축복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족장들이 현세에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내세의 축복을 원했다는 사실은 야곱이 운명하려 할 때 한 말에서도 밝히 나타난다.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다윗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하였다.

2. 은혜언약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은 언약의 내용의 통일성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언약의 통일성은 언약을 주신 분의 통일성이다. 은혜언약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언약의 통일성의 기반이 되신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함이 없이 역사하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이

49) Inst. II. 10. 11.

50) Inst. II. 10. 13.

것은 각 위격의 독특한 사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창조사역은 물론이고, 구속사역과 구속사역의 근거가 되는 은혜언약의 수립과 적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는 역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도 잘 나타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자신이 삼위 안에서 명료하게 명상되도록 제시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없고 공허한 이름이 된다고 하였다[51].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52].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두 가지 지식을 계시하셨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먼저 자신을 창조주로서 나타내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내신 순서를 따른다고 말한다. 즉 1권에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먼저 다루고 나서 2권에서 구속주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지식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자요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먼저 오게 된다. 다음으로 죽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졌는데,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요, 지음 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저작자로, 통치자로 알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51) Inst. I . 13. 2.

52) Inst. I . 6. 1

우리는 아직 세계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제책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53] 기독교강요 1권의 제목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칼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아는 지식이다. 만약에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아도 그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또한 칼빈은 그 내용을 전개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주로 나타내셨음을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54]라고 하였다. 이것은 강요 1권 13장의 제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창조 자체로부터 자체 안에 세 위격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한 본체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각 위격이 분리가 아닌 구별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언약을 수립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예정[55]하셨고, 예정의

53) Inst, I . 6. 1

54) Inst, I . 13. 2.

55) 칼빈은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으로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무흠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로 인정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께서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

내용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방편들이 정해졌다. 이렇게 은혜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은혜언약의 성취방식의 통일성

모든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동일한 중보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언약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샘물에서 그들이 전달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신탁을 길어 올렸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황송하옵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 알게 해 주셨던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이 가르친 신령한 교훈은 모두 이 샘에서 얻었다."[56] 즉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실현하셨다[57]. 즉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들을 인치는 것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의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표로서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시하신다."(Inst(1559)., Ⅲ. 21. 7.)
예정론에 대한 성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전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이다. 2.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 3. 예정은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유기되었다. 4. 때문에 예정은 전(全)구원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 된다. 5.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전구원의 기초를 삼으셨다. 6. 선택에는 구원의 서정(방식, 길)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선택이 구원의 모든 은택의 샘으로서 그로부터 신앙과 거룩, 다른 구원의 은사들, 마지막 영생까지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다. 7. 반면 예정이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그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안에는 없고, 오직 인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에서 제외하셨기 때문에 죄 아래서 멸망받은 것이다. 8. 선택과 유기는 각 인생의 고유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드러나고 확증된다.

56) Inst(1536), p. 341.

57) Inst. Ⅱ. 1. 3.

것이다.

칼빈은 2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하신 지식의 두 번째인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논한다. 2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속자로서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창조주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죽음이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내셨다."[58]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59]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이 가득찬 하나님의 지혜이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인간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즉 사람의 타락이후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60].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중보를 떠나서는 구약의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다. 율법에 있는 제사는 그리스도만이 행하

58) Inst, Ⅱ. 6. 1.

59) Inst, Ⅱ. 6. 4.

60) Inst. Ⅱ. 6. 1.

는 속죄에서만 구원을 찾으라고 신자들을 가르쳤다.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죄에 대한 대속보다는 죄에 대한 고백만이 있었다. 결코 유대인들이 제물을 통하여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얻은 것은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사도의 글에도 구약 하에서 없어지지 않던 범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속량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히10:3)"[61] 즉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가한 것이지 의식에서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은총에 참가했다는 사실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을 받았고 의식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때에 사용한 의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구절에서 의식과 그리스도를 구별한다."[62] 이와 같이 은혜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요 2권의 전개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2권 제1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유의지를 논박한다. 제6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제7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함으로써 은혜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약의 성취는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전체와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제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7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61) Inst. Ⅱ. 7. 17.

62) Inst.Ⅱ. 7. 17.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함으로써 구원의 성취가 택자들에게 적용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취와 관련하여서 칼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임을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확고한 증거가 된다.[63]"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하여서 칼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과 의를 얻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종생활과 속죄에 의한 죽음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고 하였다[64] 또한 칼빈은 옛 언약 아래서와 새 언약 아래서의 속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의 의식은 잠깐 동안만 지속된 것이다. 후에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의식은 폐기될 것이다.

4. 구원의 서정의 통일성

이와 같이 옛 언약의 성도들과 새 언약의 성도들은 동일한 은총에 참여했다. 신, 구약 모두가 하나의 구원방법이 있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의 통일성은 단순히 하나의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의 통일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혜 언약의 통일성은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의 통일성도 의미한다. 특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하나님이

63) Inst. Ⅲ. 24. 5.

64) Inst. Ⅱ. 16. 5.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 같이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자신의 뜻의 목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방편들을 선정하시었다. 따라서 타락된 아담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효과적인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써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함을 받았고, 효과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양자가 되었으며, 성화가 되어 구원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다."[65] 즉 구원의 서정의 통일성은 은혜언약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의논에 의하여 구원의 수단과 서정까지 정해진 것이다. 칼빈도 창세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중생과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1) 기독교 강요 3권의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서정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가게 되는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에 의한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논리적 순서에 의한 것이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살펴볼 때 믿음은 2장, 중생으로서의 회개는 3장, 칭의는 11장에서 13장, 성화는 6장에서 9장, 영화는 25장에서 다루고 있다.

3권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 1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의한 것으로 여기

6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6절.

에서의 성령은 영원한 신성과 본질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띠이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제 2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구하며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의 서정과 계속 관련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을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때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2장 믿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구원의 서정을 의식하여 따로 한 장으로 다루고 있다. 고린도후서 7:11과 관련하여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해당하는 신중함과 변명, 분개, 두려움, 갈망, 열심, 징벌의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로서 회개를 다룬 이후 6장부터 성화를 이야기한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부정은 자신에 대한 염려를 중시하지 않고 우리의 열성을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신실하게 바치려는 노력과 겸손하게 이웃을 돕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로 이끈다. 이러한 자기 부정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올바른 열망을 가지고 지상생활에 감사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훈련받으므로 성화되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에서 생각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제 11장부터 칭의에 대해 다루는데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는 죄용서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으로 칭의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영화는 마지막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 25장에서 다룬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고전15:16)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지금은 영생을 얻으셔서 앞으로 올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3권에서 제21장에서 24장까지 예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예정을 구원론에 제한하고자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으로서의 예정은 이미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의한 것이었음을 앞에서 말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이 역사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원 받은 자가 가는 길로서의 구원의 서정은 영원 전의 예정의 내용이며 그 결과이다. 이러한

예정론의 위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 우리에게 신론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2) 구원의 서정의 신구약 통일성의 예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 신구약을 나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구약에서의 동일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다.

믿음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66]에 토대를 두고 있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된 것이다.[67] 구원의 자비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조건부가 아니기에 이 약속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련함을 고려해 주께서 기꺼이 또 너그러이 주시는 것이라야 한다.

믿음은 무지가 아닌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화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구원 받는 것이다.[68]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는 이유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

66) Inst. Ⅲ. 2. 29. 믿음은 원래 약속으로 출발하며 약속에 근거하며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생명은 계명이나 징벌에 대한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약속과 너그러운 약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67) Inst. Ⅲ. 2. 7.

68) Inst. Ⅲ. 2. 2.

것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 3:17; 17:5)라는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고 그분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엡 12:6)고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재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은 흘러나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실현된다고 올바로 가르친다(롬15:8)고 하였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신구약에서 동일한 이러한 믿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선지자에게 물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왕하 5:1-19)이나 신약의 이방인 고넬료(행 10:31)나 빌립집사를 만났던 내시(8:27)나 그들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비록 모호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정한 제사를 드렸으며, 율법의 제사는 이방인들의 거짓 제사와 구별되게 그 제사의 목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조금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리들로 가르침 받은 것이 확실하다. 69)

회개

신약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4:8)처럼 믿음의 결과로서 따르는 회개는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유익이 없다. 요엘서 2:12에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쓰라고 한 구절은 악행으로 인해 심판을 초래하

69) Inst. Ⅲ 2. 32.

여 주님께서 징벌을 내릴 준비와 무장이 되셨음을 선포하심에 대해 재앙의 때에 정죄된 자들로서 슬퍼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외적 행위인 통곡과 금식이 회개의 영속적이거나 필연적 결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곧이어 요엘서2:13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고 말함으로 참된 회개는 주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려 마음을 찢는 것임을 말한다.

성화

성화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의 사용은 동일하여 율법은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도덕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강요 2권에서 율법의 도덕법으로서의 셋째 용도에 대해 이는 율법의 용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며 그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의 주석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율법을 도덕법인 십계명의 범주 내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분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 대해 성경에서 신구약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레19:2; 벧전1:15-16)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서 나타내셨기에 만일 우리가 자녀다운 생활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는 우리의 배은망덕임을 말1:6; 엡5:1; 요일3:1에서 말한다.

칭의

칭의에 있어서 이는 행위의 대가가 아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신구약은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신 말씀은 합개서 2:4을 인용한 것이다. 로마서 4:1,3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욥기서 25:4,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하였다.

칭의가 믿음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칼빈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70]로 들어 구약의 칭의가 신약의 칭의와 동일함을 보여주는데 그의 다른 글[71]에서도 아브라함은 새 언약의 백성과 동일한 칭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할례를 받은 것임을 말하면서 신약의 세례나 구약의 할례나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과 함께 회개와 갱신을 수반하므로 영적 할례란 회개라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 역시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믿음으로 얻은 무상의 의를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징표를 주시기 전에 그에게 믿음과 회개의 교리를 가르치셨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던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칭의를 누렸다는 증거임을 말한다.

---

70) Inst. Ⅲ. 14.11.

71) 존 칼빈, 『칼뱅작품선집 5권』, 박건택 역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p. 109.

영화

칼빈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영화에 대해서는 고전 15:12이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관계성에대해 마태복음 27:52-53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으며 이 일이 우리가 열망하는 부활의 전조나 보증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은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과 비슷하여 터툴리안이 몸과 영혼의 부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영접된 그들을 "부활의 후보자"라고 불렀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일로서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예언하는 내용은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사25:8;호13:14;고전15:54-55)

Ⅲ. 결론

신구약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을 말한다.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동일하게 나타내신다. 연약한 인간에게 적응하여 신구약에서 계시를 드러내심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자의 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서정까지도 결정하셨다. 이러한 예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구약 동일하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구약시대에 성자하나님과 성령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듯이 재창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신약과 동일하게 성자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자이시며 성령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또한 신구약의 성도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으며 동일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었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구약의 통일성은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에 있어 신론적 사고를 요구한다. 신구약의 차이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변화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카톨릭이 성경을 유일한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끝나지 않은 계시를 말하면서 성경에 없는 성례를 더하여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나 루터가 구원에 있어 율법에 의한 정죄와 복음에 의한 구원을 말할 때 구원에 있어 율법에 의한 정죄의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인간적인 사고이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구원의 약속을 은혜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

신론적 사고를 통해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할 수 있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생명의 말씀사. 199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영음사, 2003.

_____. 『성경신학』, 영음사. 1992.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엠마오. 1988.

이승구. 『개혁신학에의 한 연구』,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5.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Ⅰ.Ⅱ』,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이종성. 『칼빈』, 대한기독교서회. 1990.

유선호.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숭문출판사. 1988.

유해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세종문화사. 1980.

주교회의 교리 교육위원. 『간추린 카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3.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2.

번역서적

Alister E. McGrath. 『종교개혁사상입문』, 박종숙 역. 성광문화사. 1998.

Donald K. Mckin 외 공편.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기독교문화협회. 1992.

G.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나라』, 김영철 역. 성서유니온. 1993.

Geerhardus Vos.『성경신학』, 이승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Herman Bavinck.『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J. Calvin.『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2004.
_____.『기독교 강요 최종판』, 로고스 번역위원회. 1987.
_____.『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외 공역. 생명의말씀사. 1991.
_____.『Commentary』,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 간행사. 1980.
Louis Berkhof.『조직신학下』, 이상원 외 공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2000.
M. Luther.『루터선집』,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81.
Norman L. Geisler / Ralph E. Mackenzie.『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 역. 도서출판 그리심. 2003.
Paul Althaus.『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1996.
Philip C. Holtrop.『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P. Robertson.『계약신약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Richard A. Muller.『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이은선 역.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3.
Thomas E. McComiskey.『계약신약과 약속』,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로레인 뵈트너.『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티모디 조지.『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피영민 역. 요단출판사. 1996.

논문

고형배.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발전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김지훈. “칼빈에게 있어서 신, 구약의 은혜언약의 통일성: 통일성의 기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용원.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그 성취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이광호.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에 타나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손명호. “신,구약의 통일된 주제로서의 하나님 나라사상”,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최형기. “언약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